

원 지사 “난개발 우려 마침표”

어제 송악산서 청정제주 선언... “경관해치는 사업 엄격금지”
 오라단지·동물테마파크 등 논란 거둬 대규모 사업 영향줄 듯
 제2공항은 갈등해소위한 의견 수렴중... 환경문제 별도 마련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난개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청정제주’를 선언하면서 도내에서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3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5일 서귀포시 송악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 자연은 모든 국민이 누릴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른바 ‘다음 세대를 위한 제주 선언’을 발표했다.

원 지사는 “2014년 제주도지사 취임 이후 난개발 차단에 노력해 왔다”면서 “환경보전을 최우선하는 제주 투자 3원칙을 세웠고, 중산간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외국인 투자이민을 대폭 축소했다. 또 자연 경관을 해치거나 부동산 개발·분양 위주의 사업은 중단시켰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어 “그럼에도 아직 남아 있는 난개발 우려에 오늘로 마침표를 찍겠다”며 “자연 경관을 해치는 개발은 더욱 엄격하게 금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대규모 투자는 자본의 신뢰도와 사업내용의 충실성을 엄격히 심사하겠다”며 “오라관광단지는 현재 제시된 사업내용과 투자로는 제주도의 엄격한 개발사업 심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어 “제주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것은 개발사업의 기본 전제”라며 “동물테마파크는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제기된 생태계 교란과 인공통감염병 우려를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살펴야 할 문제다. 비자림로 확장은 법정보호종 보호와 환경피해 저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날 원지사는 현재 공사

가 중단된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공공의료, 연구개발단지로 전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모든 투자와 개발은 반드시 제주의 미래가치에 기여해야 한다”며 “녹지국제병원은 소송에 적극 대응하면서, 헬스케어타운 본래의 목적에 맞는 공공의료, 연구개발단지로 전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 ‘난개발 우려의 마침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나’는 질문에는 “오늘은 원칙을 밝히고 도민들의 우려를 씻어내겠다는 것으로 구체적인 방향은 유추해 달라”며 “각 사업마다 하나하나 최종적으로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는 적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원지사는 또 ‘이번 선언에 제2공항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를 묻자 “국토부와 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며 “제2공항에 따른 환경문제는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2020제주산림문화체험 사라니숲행사가 25일 개막해 오는 29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다. 강희만기자

“가을 깊어가는 사라니숲에서 재충전”

12회 사라니숲에코힐링 개막
 방역지침 준수 오는 29일까지

“마스크를 끼고 있어 가을숲의 향기를 맡겠 들이마시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제주의 숲은 길을 때마다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2020 제주산림문화체험 사라니숲 에코힐링 체험” 행사가 서귀포시 표선면 남조로변에 위치한 사라니숲길 붉은오름~조천을 교래리 비자림로 구간에서 25일부터 시작해 오는 29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산림문화체험 사라니숲길위원회 주관으로 올해 12회를 맞는 행사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생물권보전

지역에 위치한 평탄한 숲길을 저마다의 속도로 걸으면서,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관심과 번잡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힐링하는 시간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널리 이름을 알리고 있다.

특히 사라니숲길위원회는 올해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상황을 감안해 탐방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탐방로 입구에서 열화상카메라로 발열 체크, QR코드 전자출입명부(수기 작성 병행), 몸에 붙이는 체온계 부착 등 꼼꼼한 방역에 나섰다. 탐방객 모두가 적극 협조하는 모습이였다.

탐방객이 밀집할 수 있는 행사는 올해는 대폭 축소했다. 개막식 없이

25일 숲 열린무대에선 홍조밴드의 무대공연이 펼쳐졌고, 관객들은 2m 이상 거리를 두고 앉아 작은 무대와 호흡했다. 무대공연은 27일과 29일에도 열린다.

열린무대 주변에선 행사기간 임종도 작가가 사라니숲의 사계절을 10분 분량의 영상으로 담아낸 사진전도 만날 수 있다. 26~29일에는 ‘숲속 힐링 명상’이 현장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마스크 착용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돼 탐방로 구간의 월든삼거리에 위치한 코로나19 예방 홍보 캐릭터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인증샷을 찍어 행사분부석(열린무대 인근)에서 확인하면 마스크·손소독제를 기념품으로

제공(상품 소진때까지)하고 있다. 자연휴식년제 시행으로 평소엔 탐방이 불가능한 숲길 탐방로 구간내 물맞춤 탐방도 사전예약제로 운영중이다. 29일까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30분까지 회당 20명씩 사전예약자에 한해 탐방이 허용되고 있다.

경남 합천에서 지인들과 제주를 찾았다는 이들은 “사라니숲을 처음 찾았는데, 청정한 숲 향기를 마스크 없이 만끽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지 않나”며 “우리가 사는 곳에선 볼 수 없는 드넓은 숲길이 있어 제주가 더 좋다”고 했다.

김진희(서울)씨는 “자녀들과 음악회·사진전을 보고 숲길도 걸었다”며 “몇 해 전엔 봄날의 사라니숲을 걸었는데, 가을 사라니숲은 또다른 느낌이다. 중간중간 송잇길의 사각사각한 촉각과 중간중간 울긋불긋 물들이는 시간이 됐다”고 탐방소감을 전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독감백신 접종 “중단 없다”
 70세 이상은 의사 상담후에

제주특별자치도는 독감(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중단 없이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1일 녹십자사의 ‘지씨플루코드리벨런트(Q60220030)’ 백신 접종 후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68세 남성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접종과의 인과성을 판단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접종 지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감염병관리지원단, 제주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도내 의료 전문가들의 자문 결과 향후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비슷한 증상의 감염병 동시 유행) 방지를 위해서도 국가예방접종 추진 방침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와관련 배종면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건강한 성인인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향후 의료체계 붕괴 차단 등 더 큰 피해 방지를 위해 바람직하다”면서 “단 70세 이상 고령자이면서 기저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병·의원 의사의 상담과 진찰을 통해서 예방접종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특별고용지원업 추가연장 건의
 도, 고용노동부에 내년 12월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당초 내년 3월 말에서 12월 말로 9개월 추가 연장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업종은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8개 업종으로 여행업, 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 관광숙박업, 공연업, 항공기상조업, 면세점, 공항버스, 전시·국제회의업 등이다.

제주지역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 가운데 관광분야가 전체 신청건의 3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근로자 고용안정과 지역 경제위기 극복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백금탁기자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JEJU FORUM 2020

FOR PEACE & PROSPERITY

2020. 11. 5(Thu) - 7(Sat) | 온라인 생중계



YouTube 라이브



제주포럼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4차 산업혁명재단, 동아시아재단, 제주문화연구원 후원 외교부, JD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다자협력을 위한 새로운 구상: 팬데믹과 인본안보

REINVENTING MULTILATERAL COOPERATION

Pandemic and Humane Security

BILL CLINTON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BAN Ki-moon
 반기문 제2대 UN 사무총장



Antonio GUTERRES
 안토니우 구테흐스 현 UN 사무총장



GOH Chok Tong
 고육동 전 싱가포르 총리



Mahathir Bin MOHAMAD
 마하티르 모하맛 전 말레이시아 총리



Matteo RENZI
 마테오 렌지 전 이탈리아 총리



Tarja HALONEN
 타르야 할로넨 전 핀란드 대통령



Kevin RUDD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



Thomas FRIEDMAN
 토머스 프리드먼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